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및 세부사업 선정을 위한 라오스·인도네시아 농업개발협력사업 수요조사 현지 출장

1. 출장목적

-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농식품부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아시아 7개 국가별로 ① 농업·농촌분야 ODA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② 중점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의 목록을 제시하며, ③ 세부사업별 추진방식을 제안함으로써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을 발굴/기획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7개국 가운데 미얀마, 베트남의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점추진 분야와 세부 협력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그 세부내용 및 사업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협력사업의 발굴과 기획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대상국 농업, 농촌개발 분야 개발협력 사업 수요조사(사업의 리스트 작성)
 - 사업별 주요 내용 정리 및 제공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김종선 부연구위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라오스(비엔티엔),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17. 7. 24. ~ 2017. 7. 29. (4박 6일)
최민정 초청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3. 주요 내용

가.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 일시: 2017년 7월 25일 오후 1시
- 방문자: 김종선, 임영아, 최민정
- 면담자: 권선철 영사
- 주요 면담 내용
 - 라오스 현지 내에서의 수요 파악 자체가 힘든 상황임. 수요 파악 역량도 낮은 편이므로 제안서 수집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5개년 국가경제개발계획도 UN에서 도와서 계획을 수립 하였음.
 - 쌀, 커피를 제외하고는 농업 분야에서 기술력이 낮은 수준임.
 - 타국, 국제기관, 한국 기관에서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함.
 - KOICA에서는 농촌 ODA 사업 중이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중심임.
 - KOPIA에서 수행 중인 사업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원예 나 과일에 대한 재배기술을 교육 중임
 - 산업통상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Eco-town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임.
 - GGGI가 라오스에 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준비 중임.
 - 양국 농림부 간 MOU 체결은 작년에 추진하였으나 최종 단계에서 보류되었음.
 - 한국 정부가 라오스 농업 부문 외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것은 라오스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을 지원하기에는 인프라 및 소비 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임.
 - 국제 원조에 있어서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세계은행(World Bank)

□ 일시: 2017년 7월 25일 오후 3시

□ 방문자: 김종선, 임영아, 최민정

□ 면담자: Cao Thang Binh(프로젝트 담당자), Chanhson Manythong,
Oliven(라오스 지역 전문가)

□ 주요 면담 내용

- 현재 세계은행이 라오스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내용의 틀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업생산의 효율성 & 지속가능성 제고
 - ② 상품화(**commercialization**) 제고 <=> **Agri-business**
 - ③ 프로젝트 관리(사후 이행 점검)
- 주요 대상은 지역별로 옥수수 가치 체인, 채소 및 과일 가치 체인, 쌀 가치 체인으로 대별 가능함.
- ①과 ②의 경우에는 현재 시작 단계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체 재원으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 가능함.
- 이 때, 타임라인은 2017년 10월/11월 시작 - (2017년 12월/2018년 1월 협상) - 2018년 6월/7월 과제완료가 됨. 단, 이 때 수집한 기초 자료는 5-10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도 활용 가능할 것임.
-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1-2명의 전문가가 2017년 10월부터 라오스 현지로 와서 팀으로 작업 가능함.
- 프로젝트의 범위를 좁힌다면,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가능함. 기후스마트농업(**CSA**)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①의 **GAP**에 **CSA**가 포함 가능함.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9월 4주 안에 경제성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며, 필요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 가능함.
- 예산의 경우에는 ①은 3,100만 달러, ②는 200만 달러를 예상 중이며, 세계은행이 라오스 정부에 대출(**loan**)해주는 것임.



<세계은행 관계자 미팅>

다. 라오스 농림부 기획협력국

- 방문일시: 2017년 7월 25일 오후 4시
- 방문자: 김종선, 임영아, 최민정
- 면담자: **Phommy Inthichack** (과장), Arfiani, Tho Diahm, Nitz Yuliang, Inaimatisintyk (총 5인)
- 주요 논의 내용
 - 기 제출한 예비 PCP 자료 논의
 - 수요서 제출부처 공무원들과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논의
 - 사업 세부 구성요소 검토 및 논의

국가	번호	사업명	사업비(Indicative) (천 달러)
라 오 스	1	살충제 위험성 감소를 위한 역량강화	1,950
	2	곡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보관리 역량강화	1,000
	3	농가 기계화 추진 프로젝트	2,800
	4	소농가의 콩 생산성 강화 및 재배 역량 강화	200

- 아시아 7개국 국내 Round-table workshop
 -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Round-table workshop이 11월 16일과

17일에 열릴 예정

- 아시아 7개국의 고위급 공무원들과 농식품부, 우리 연구원 및 유관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효과적인 ODA 사업을 위한 토론 예정

○ 기타 면담 내용

- 라오스 농림부는 지난 달 조직 개편이 있었고, 현재도 조직 개편 중인 상황임.
- 가능하다면 신설되는 정책법률부(Department of Policy and Legal Affairs)에서 협력 사업을 담당하기를 희망함.
- 한국 농식품부와 MOU 체결을 진행한 바 있으므로, 향후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현재 13개 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Livestock and Fisheries, Department of Irrigation,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and Rural Developmen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 Department of Planning and Finance, Department of Forestry, Department of Forestry Inspection, Department of Inspection, Department of Policy and Legal Affairs, 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NAFRI-연구기관 등)가 농림부 산하에 존재함.
- 한국의 입장은 각 부처별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서 중앙 정부 기관인 농림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제안해주기를 희망함.
- 현재 접수된 희망사업 대상 수가 적으므로 제안서 수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 수집된 제안서는 추후 양국의 대사관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접수하기로 협의함.

-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서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해주기를 요청함.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농업인이 체감을 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라오스 농림부 면담>

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방문일시: 2017년 7월 27일 오후 3시
- 방문자: 김종선, 최민정
- 면담자: 이상익 임무관,
 - 아시아 7개국 국제농업협력사업 예비 PCP관련
 - 농식품부는 「국제농업협력사업(ODA) 개선방안(2017.2)」을 통해 ‘대표적인 성공유형을 집중 추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획 방법 개선’, ‘사업관리 역량 보완’, ‘지속적인 사업 환류를 위한 사업 평가체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인도네시아의 국제농업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이번 출장의 취지를 설명함
 - 향후 ODA 사업 선정 또는 KAPEX 사업을 통한 인도네시아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 요청

○ 인도네시아 농업전략계획(Strategic Plan of Indonesian MOA, 2015-2019) 설명

- 인도네시아의 농업부(the Indonesian Ministry of Agriculture, MoA)는 이전 2010-2014년 5개년 계획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5년에 새롭게 농업전략계획 5개년(2015-2019)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5개년 계획은 ‘30년 농업개발주요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들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로 구성됨.
- 이전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부문의 GDP 10% 생산 달성, 농업에의 투자 확대, 농산품 수출 증대, 농업 종사자 소득 증대, 농촌지역 빈곤 감소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 중 대부분의 목표들이 달성됨.
- 이와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MoA의 2015-2019년 5개년 개발 계획은 식량 자주권과 농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함.
- 위와 같은 5개년 농업개발계획의 정책목표와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 매년 농업부문의 GDP 대비 생산량의 3.87% 성장, 2) 연간 국내 농업투자 5.02% 증가 및 해외 투자 4.72% 증가, 3) 농업부문 무역수지(수출입 비율) 12.7% 개선, 4) 농가소득 6.29% 증대 및 가축영농 소득 5.77% 증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세부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개발을 위한 대부분의 예산 (85-90%)은 은행, 지역사회, 국내 및 해외 투자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인도네시아 농업부

□ 방문일시: 2017년 7월 28일, 오후 5시

□ 방문자: 김종선, 최민정

□ 면담자: Aia Eka, Simon, M. Yusdupriantono, Ronanli S. (총 4인)

○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예비 PCP 내용

사업명	(국문) Sambas 지역의 시트러스 과일 생산성 및 품질 제고 (영문): INCREASING OF PRODUCTION AND QUALITY FOR CITRUS IN SAMBAS DISTRICT
사업기간	2017 ~ 2018 (2년)
사업목적	Sambas District 지역의 시트러스 생산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애그리비즈니스 활성화와 고품질 시트러스 과일 생산
세부목적	Sambas District 지역에 GAP 품질기준을 적용한 200ha의 시트러스 과수원 조성
사업시행기관	농업부 원예국(Directorat General of Horticulture)
사업수행기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선정배경	Sambas는 인도네시아의 시트러스 과일의 주산지 (8,886.4 ha, 93,211.5 톤)이나 해충과 질병(CVPD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따라서 농민, 농민그룹,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애그리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 향상, GAP 적용을 통한 고품질 시트러스 생산, 그리고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확 신기술 도입 • 상업용 과수시설 설치 및 GAP 등 표준에 적합한 생산재배지 구축 (200ha) • 해당 지역 농민, 관련 사업자의 지식/기술 역량강화 • 인프라 개발(도로, 농자재, 농기계 등) • 사업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수혜자 집단	Sambas 지역사회, 농민, 지방공무원, 농업부 원예국
예산적 예산	700,000 USD

○ 검토의견

- 생산단지 조성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음. 또한 시트러스 과일 생산은 내수시장이 아닌 수출 적합지역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실제 과일 생산부터 생산관리, 유통망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
요가 있음.

사업명	(국문) 콩(legume)과 덩이줄기 식물류(tuber)의 품목 다 양화와 농업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제고
	(영문): The Improvement of farmers' income by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various commodities of legumes and tubers, also enhancing agricultural resources capability
사업기간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 선진 국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농업자원 역량 강화
세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수확 관련 농민 지원 • 타 국가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지식 및 기술 향상
사업시행기관	농업부
사업수행기관	지역별 농업 관련 부처
사업선정배경	콩(legume)과 덩이줄기 식물(tuber)은 쌀과 옥수수의 보 조 작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외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타 국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농민과 관련 종사자를 위한 지원과 정책경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국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 작물 수확, 영농활동 교육, 기술전수 등 농업자원 역 량강화를 위한 지원
수혜자 집단	농민 및 관련 종사자

○ 검토의견

-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쟁력과 사업의 당위성
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작물 경쟁력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이 추가 첨부되어야함.



<인도네시아 농림부 면담>